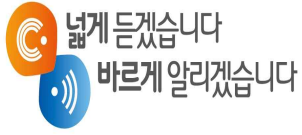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4. 1. 28(화) 총 9매(본문 6, 붙임 3)	
담당 부서	교통정책조정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용석, 사무관 김운혁, 주무관 유용식 • ☎ (044)201-3786, 3793
보 도 일 시		2014년 1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8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“10년간 설날 당일 귀성·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”

설 연휴 통행 패턴 분석...인구구조인식변화, SOC확충교통정보 등 원인

- 지난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·귀경이 크게 늘어난 반면, 고속도로 주요 구간 소요시간은 최대 3시간 이상 단축되는 등 도로 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가 설 연휴 귀성객들의 통행특성 변화를 10년 전(2004)과 비교·분석한 결과, 설 당일에 귀성·귀경하는 비율이 귀성은 8.5%(16.4→24.9), 귀경은 15.3%(24.2→39.5) 정도 크게 증가했다.
- 1박2일 체류(22.2→34.0, 11.8% ↑), 수도권 내 이동(20.6→28.5, 7.9% ↑), 승용차 이용(75.9 → 83.3, 7.4% ↑) 및 고속도로 이용(71.3→81.1, 9.8% ↑) 비율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그러나 SOC시설 확충, 교통정보 제공능력 향상 및 정부의 특별교통 대책 등으로 인해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구간 최대 소요시간(예측)은 10년 전보다 최대 3시간 이상 단축되어, 명절기간 통행수요의 특정 기간 집중에도 불구하고 도로정체는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.

2004년 및 2014년 설 연휴 특성

2004년 설 연휴

화	수	목	금	토	일
1월 20일	1월 21일 설 전날	1월 22일 설	1월 23일 설 다음날	1월 24일	1월 25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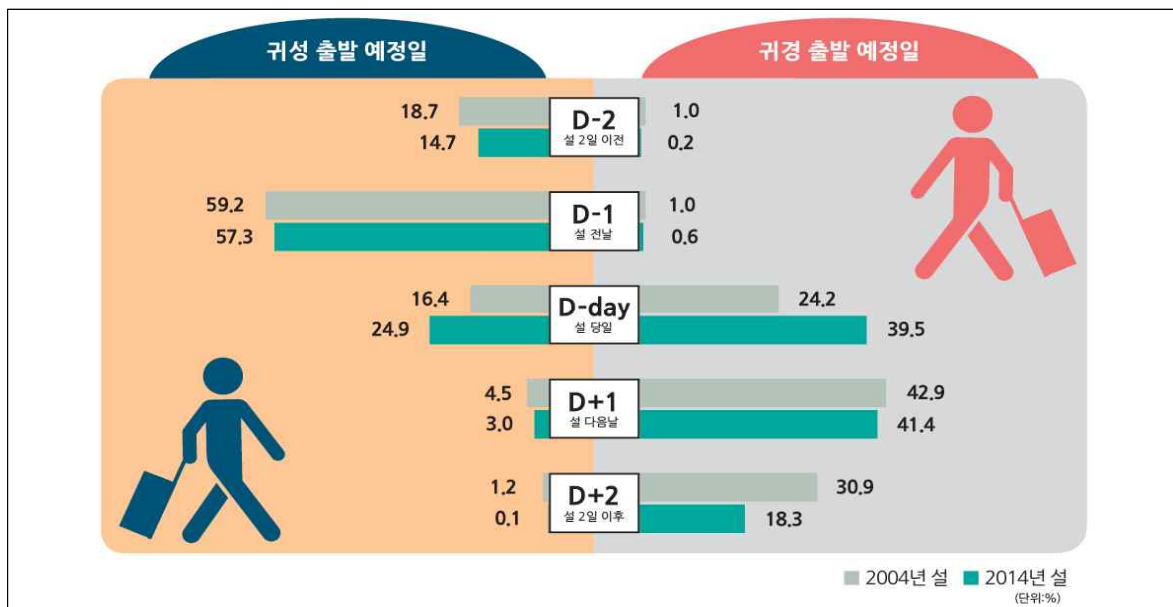
2014년 설 연휴

수	목	금	토	일
1월 29일	1월 30일 설 전날	1월 31일 설	2월 1일 설 다음날	2월 2일

□ 귀성·귀경일은 설날 포함 전·후 3일 동안에 80% 이상 집중

- (이른 귀성객·늦은 귀경객 감소) 지난 10년간 귀성·귀경길 출발의 경우, 설날 2일전 귀성은 4.0%(18.7→14.7), 설날 2일 이후 귀경은 12.6%(30.9→18.3) 각각 감소한 반면, 설날 당일 귀성은 각각 8.5%(16.4→24.9), 설날 당일 귀경은 15.3%(24.2→39.5)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설날 포함 전·후 3일 동안 80%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는 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과 비수도권 거주 부모 세대의 감소로 인한 중·장거리 이동인원의 상대적 감소와 명절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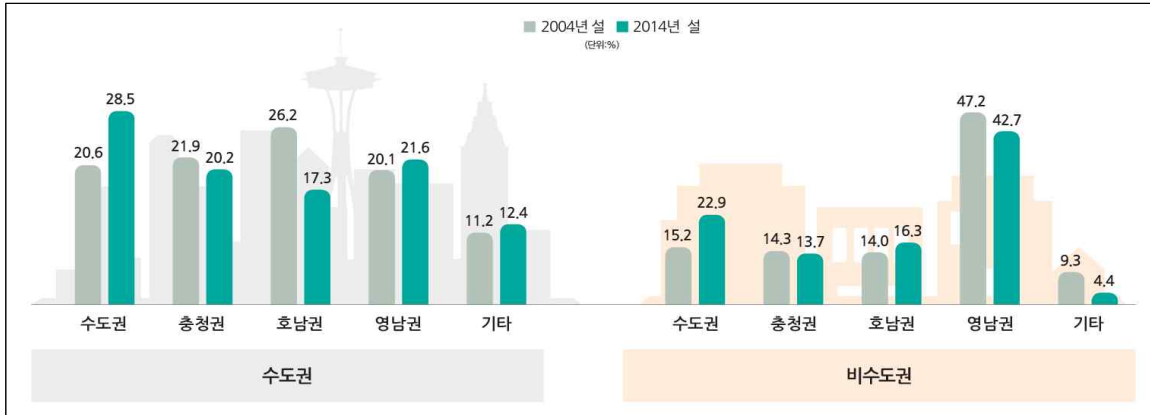
< 출발일, 출발 시간대별 귀성·귀경객 변화 비교 >



□ 수도권 내부 귀성 및 역귀성 비율 증가

- 수도권으로의 귀성비율은 수도권 내부이동 7.9%(20.6%→28.5%), 역귀성 7.7%(15.2%→22.9%) 정도 각각 증가 하였으며,
- 비수도권은 '04년과 '14년 모두 '영남권'으로의 귀성 비율이 높으나, 10년간 소폭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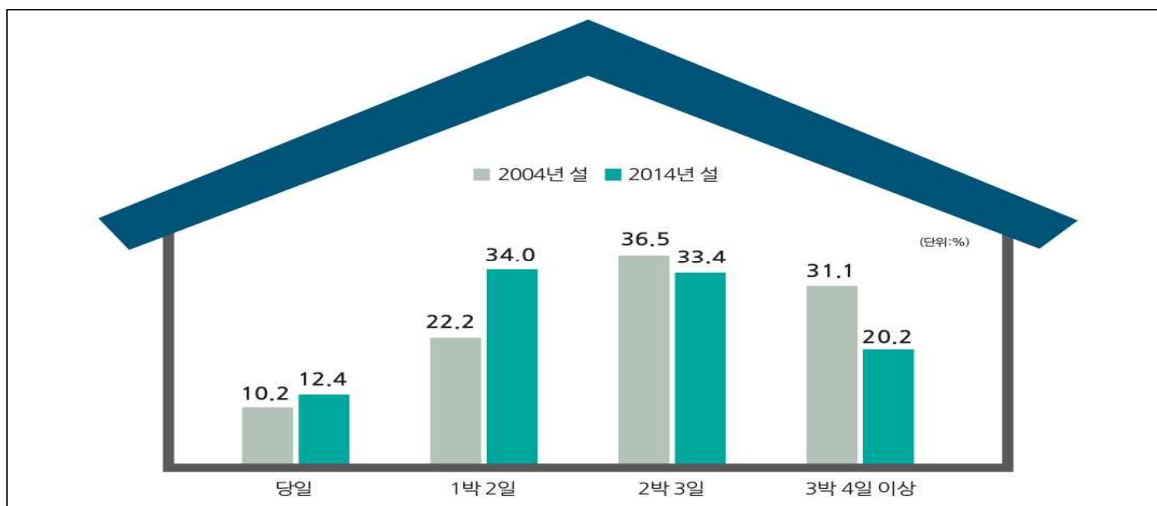
< 귀성지역 변화 비교 >



□ 명절기간 체류일수 점차 감소

- 명절기간 체류일수는 1박2일은 11.8%(22.2→34.0), 당일 귀성·귀경은 2.2%(10.2→12.4) 증가한 반면, 2박3일 이상 체류는 14.0%(67.6→53.6)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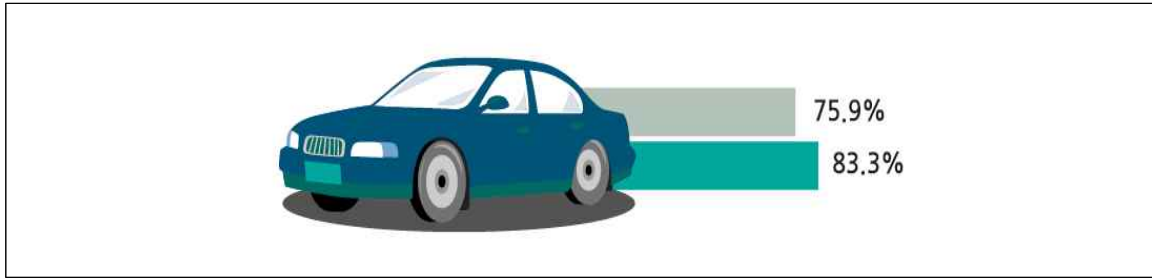
< 설 연휴기간 체류일수 변화 비교 >



□ 자가용·고속도로 이용률 증가, 반면에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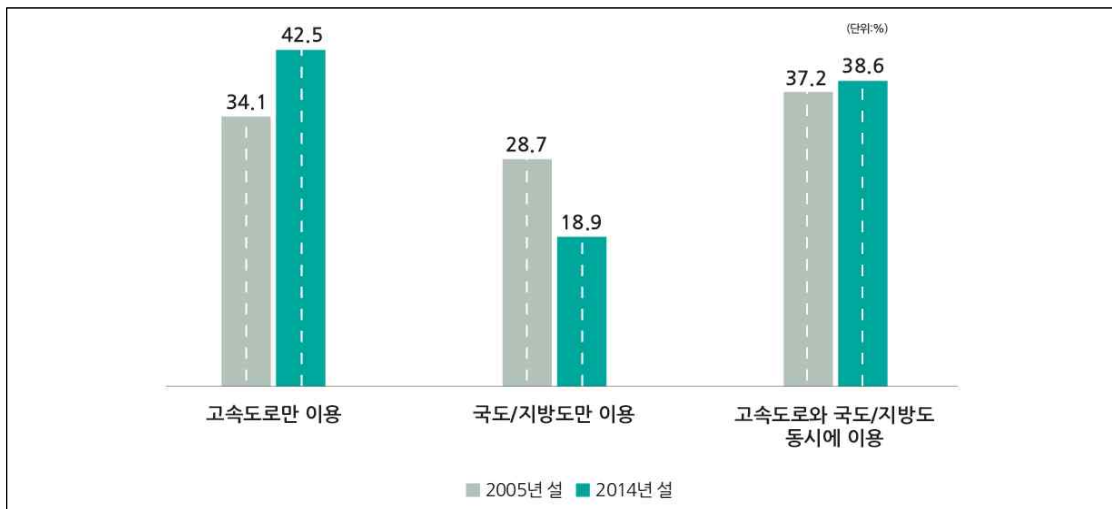
- (자가용 승용차 이용률)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가용 승용차 보유 확대('00년 900→'12년 1,480만 대)로 '04년 대비 '14년 설 연휴기간 자가용 이용률은 7.4%(75.9→83.3)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.

<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 변화 비교 >



- (고속도로 이용률) 고속도로 신규 개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05년 대비 2013년 '고속도로만 이용'한다는 비율은 8.4%(34.1→42.5) 증가하고, '국도/지방도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10%(28.7→18.9) 가까이 감소하였다.

< 설 연휴기간 이용 예정 도로 변화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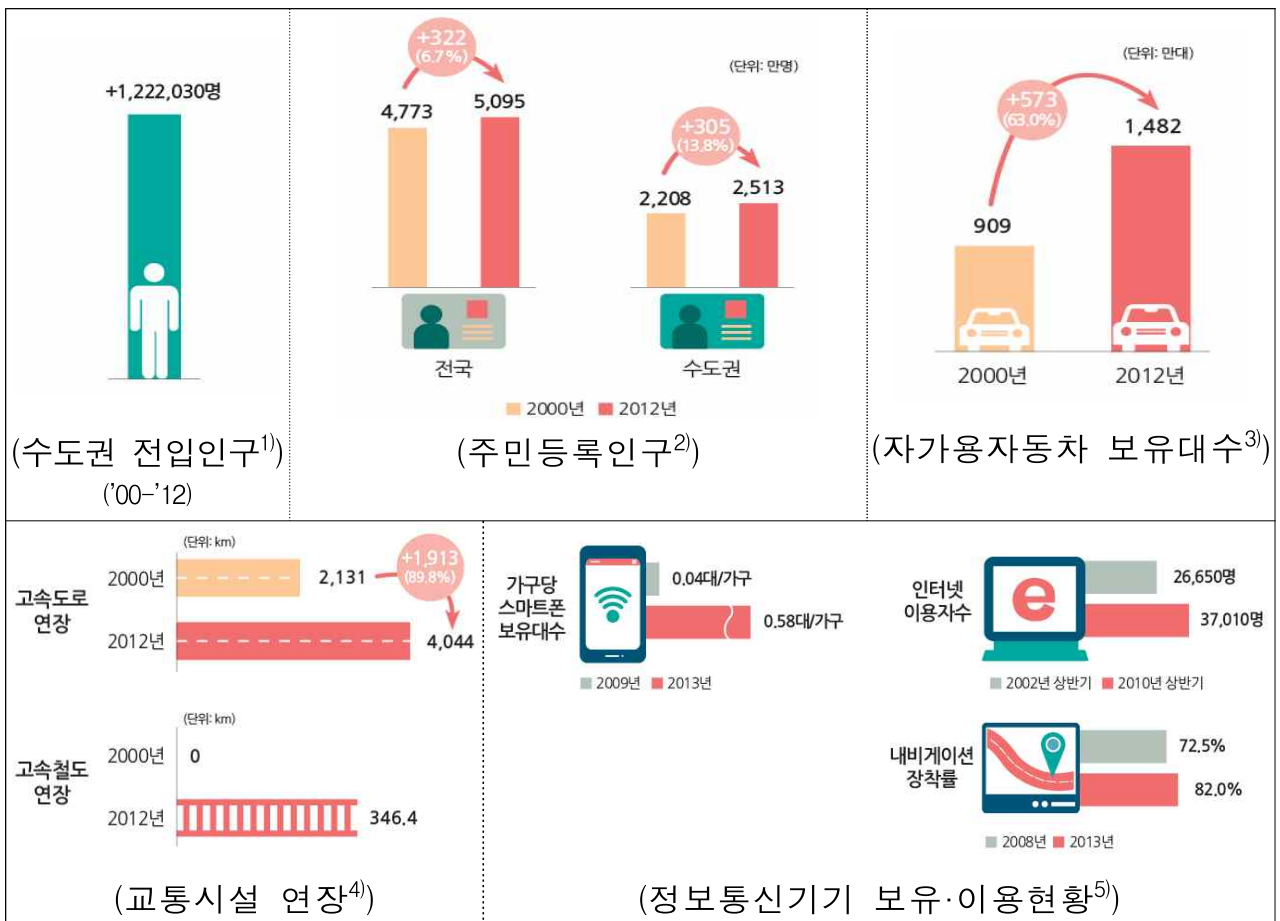
- (최대 소요시간 단축) 최대 소요 예상시간은 ①인구 증가로 인한 귀성인원 증가 ②설 전후 3일간 통행비율 상승 ③자가용 승용차 이용비율의 증가 등의 통행 시간 증가요인이 있었음에도 주요 구간의 최대 예상 통행시간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,
 - 특히, 서울~부산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(귀성)은 약 2시간(10:20→8:00) 이상, 서울~광주는 약 3시간(10:00→6:50) 정도 단축되었다.

< 설 연휴기간 최대 소요시간 변화 비교 >



- 이는 SOC 사업의 확충, IT 기술 발달로 인한 교통정보제공 향상, 수도권 내부 귀성 비율 상승, 역귀성 비율 증가, 정부의 지속적인 특별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상쇄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.

< 관련 주요 사회경제지표 변화 비교 >



- * 자료: 1) 통계청, 국내인구이동통계(순이동자수)
- 2) 안전행정부, 주민등록인구통계
- 3) 국토교통부, 자동차등록현황보고
- 4) 고속도로 - 국토교통부, 자동차등록현황보고
고속철도 - 한국철도공사, 철도통계연보
- 5)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대수 - 방송통신위원회,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
인터넷 이용자수 - 미래창조과학부, 인터넷이용실태조사
내비게이션 장착률 - 마케팅인사이트,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조사
- * 주: 전입인구 -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통계값을 합한 수치임
자가용자동차 - 자가용 승용자동차 + 15인승 미만 자가용승합차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통행분석결과를 기초로 설 포함 전·후 3일 교통 수요 집중, 역귀성 비율 지속적인 증가, 수도권 교통수요 집중 등 변화하는 설 명절 통행실태를 향후 특별교통대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김운혁 사무관(044-201-37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

-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설 연휴 약 30일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설 연휴기간의 통행수요를 분석·예측함.

<설 연휴 교통통행실태 조사개요>

구분	2004년 설 사전조사	2014년 설 사전조사
설 연휴 대책기간	1. 20(화) ~ 1. 26(월)	1. 29(수) ~ 2. 2(일)
조사표본	2,741세대 (신뢰수준 95%, 표본오차 ± 1.50%)	9,000 세대 (신뢰수준 95%, 표본오차 ± 1.03%)
조사일시	2003년 12월 9일 ~ 11일 (3일간)	1월 2일 ~ 6일 (5일간)
조사대상	전국 단위 세대(16개 시도)	전국 단위 세대(17개 시도-세종시 포함)
조사방법	전화인터뷰	컴퓨터(CATI)를 이용한 전화인터뷰
표본추출	세대수 비례 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	

참고 2

관련 주요 통계지표 변화

- (고속국도 연장 /자가용차량 등록) 전체 도로 중 고속국도 비중은 2000년 2.4%에서 2012년 3.8%로 1.4% 증가 하였고, 연장도 2000년 대비 89.8% 증가
 - 전체 차량 중 자가용차량 비중은 2000년 75.4%에서 2012년 78.6%로 3.2% 증가 하였으며, 등록대수도 2000년 대비 63.0% 증가

<표> 도로연장 및 자동차등록대수 변화

구분	도로연장 ¹⁾ (km)			철도연장 ²⁾ (km)	자동차등록대수 ³⁾ (천대)		
	전체	고속국도	고속국도 비율 (%)		전체	자가용	자가용 비율 (%)
2000년 (A)	88,775	2,131	2.4	3,123	12,059	9,094	75.4
2012년 (B)	105,703	4,044	3.8	3,559	18,871	14,824	78.6
변화(B-A)	+16,928	+1,913	+1.4	+436	+6,812	+5,730	+3.2
변화율(%) ((B-A)/A*100)	+19.1	+89.8	-	+14.0	+56.5	+63.0	-

자료: 1) 국토교통부, 도로현황조사서

2) 한국철도공사, 철도통계연보

3) 국토교통부, 자동차등록현황보고

주: 자가용차량 - 자가용 승용자동차 + 15인승 미만 자가용승합차

□ 인구변화

- (수도권/충청권 전입인구)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순 이동인구를 집계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의 전입인구가 증가 하였으며, 수도권으로 약 122만명의 인구가 이동
- (비수도권 고령자 사망비율) 2000년부터 2012년 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수 비율이 더욱 높음.

- (수도권 인구) 2000년에서 2012년 간 수도권에서 약 306만명이 증가

<표> 권역별 인구지표 변화(2000~2012년)

(단위: 명)

권역	수도권	강원권	충청권	전라권	경상권	제주권	
전입인구 ¹⁾ (2000~2012)	+1,222,130	-75,964	+146,032	-511,226	-775,762	-5,210	
사망자수 ²⁾ (2000~2012)	전체	1,218,373	138,369	389,010	471,125	970,866	37,785
	60세 이상	871,668	105,235	299,187	370,691	725,387	27,326
	60세 이상 비율(%)	71.5	76.1	76.9	78.7	74.7	72.3
주민등록 인구 ³⁾	2000년(A)	22,076,426	1,554,688	4,804,723	5,501,778	13,252,575	542,368
	2012년(B)	25,132,598	1,538,630	5,232,105	5,252,175	13,209,051	583,713
	변화(B-A)	3,056,172	-16,058	427,382	-249,603	-43,524	41,345
	변화율(%) (B-A)/A*100	+13.8	-1.0	+8.9	-4.5	-0.3	+7.6

자료: 1) 통계청, 국내인구이동통계(순이동자수), 2)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

3) 안전행정부, 주민등록인구통계

주 : 1), 2)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통계값을 합한 수치임, 2) 연령미상 제외

□ 정보통신기기 보유/이용 변화

- (스마트폰 보급)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대수는 2009년 0.04대에서 2013년 0.58대로 증가
- (인터넷 이용자수) 2002년과 2010년 인터넷 이용자수는 2,565만 명에서 3,701만 명으로 증가
- (네비게이션 이용률) 차량 내 네비게이션 장착률 역시 2008년 72.5%에서 2013년 82.0%로 증가

<표> 정보통신기기 보유/이용현황

구 분	내 용
가구당 스마트폰 보유대수 ¹⁾	0.04대/가구 (2009년) 0.58대/가구 (2013년)
인터넷 이용자수 ²⁾	25,650천명 (2002년 상반기) 37,010천명 (2010년 상반기)
네비게이션 장착률 ³⁾	72.5% (2008년) 82.0% (2013년)

자료: 1) 방송통신위원회,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, 2) 미래창조과학부, 인터넷이용실태조사

3) 마케팅인사이드,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조사